

##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한창



▲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노사정 2·6 합의'에 따라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 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주요 논의 의제는 ▲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이다.

계속고용위원회는 7~8월 간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한 사실 확인(fact finding) 과정을 통해 향후 세부 의제를 합

의하기로 하였다. 팩트 파인딩 과정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다.

제2차 계속고용위원회 전체회의(7.11.)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주제로 공익위원인 엄상민 경희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엄상민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가 향후 경제성장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인적자본이 우수한 고령 근로자의 활용이 성장 제약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고령자의 인적자본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고용과 비용 완화를

[표 1] 팩트 파인딩 발제 관련 주제

의제	노동계	경영계
fact finding (7월~8월) 발제 관련	1.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력 및 노동시장(고용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파급효과와 부정적 영향) 2.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소득과 빈곤, 연금에 미치는 영향 3. 60세 정년 도입 이후 노동시장(고용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중고령자의 퇴직과 은퇴의 양태 5.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OECD 사례 분석(퇴직과 은퇴) 6. 인구고령화와 지역소멸 7. 인구고령화와 고령자의 건강권	1. 거시적 측면에서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어 우리 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 2. 노동시장 이중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노동계에서 제안한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효과 등 포괄) 3. 연금이나 복지 제도 등 사회안전망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제3차 전체회의(8.8.)에서는 양재진 연세대 교수가 「고령화시대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제갈현숙 한신대 교수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소득과 빈곤, 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양재진 교수는 “인구고령화에 취약한 부과방식 연금 대신 적립형 연금 강화와 퇴직연금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갈현숙 교수는 “한국은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면서 부양할 노년층이 증가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시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부양비 마련을 위한 대책이 절실해졌다”며 “노인이 계속해서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적자본이 우수한 고령 근로자의 활용이  
성장 제약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4차 전체회의(8.22.)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박사가 「60세 전후 고령자 노동시장 이행 및 정책 대응」을, 한국노동연구원 진성진 박사가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과 정년 연장의 고령자 고용효과」를 발표했다. 이승호 박사는 “60세까지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는 규모가 14.5~17.0% 수준으로 제한적이고, 정년에 퇴직하는 정규직 집단은 대기업, 공공부문, 유노조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진성진 박사는 “고령자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연령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곳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종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8월 8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인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정년 연장, 임금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나누고 있지만,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해법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년 연장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사례가 현대자동차인데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노동조합이 있는 곳과 없는 곳, 대기업과 중소기업, 5인 이하의 사업장, 30인 이하 사업장 등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를 전제로 논의를 이끌어가야 더 균형 잡힌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제5차 전체회의(9.12.)에서는 계속고용 OECD 선진 사례(일본 및 싱가포르)와 실제 계속고용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분을 모셔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계속고용위원회가 제안한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한 노·사의 세부 논의 의제들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slc**

담당 장욱희 전문위원

# “사회적 대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취임인사 ... 집행부 간담회 가져 -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8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김기문 회장 및 지도부와 취임 인사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회적 대화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확성기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은 AI 등의 기술혁신에서 비롯되는 산업구조 변화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산업전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소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수용성에 달려있다”며, “고금리, 내수부진과 과도한 노동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 “한경협, 경제 중추단체로서 미래세대를 위해 다양한 의견 달라”-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편, 권기섭 위원장은 8월 28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도 방문하여 류진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노동·산업 등의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권 위원장은 “한경협은 경제계의 중추 단체로서 새롭게 출발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도약을 이루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한경협이 위원회의 공식 멤버는 아니지만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제도화된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우리 경제의 고비마다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한경협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참여 단체는 물론, 각급 노사 단체를 다양하게 만나 폭넓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ESC**

담당 이길모 전문위원



# 경사노위 “노동약자 목소리 담는 ‘계층별위원회’ 출범시킬 것”

- 권기섭 위원장, 본위원회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위원과 간담회 -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가운데)이 29일 본위원회 노동계 계층별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기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9일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열린 본위원회 노동계 계층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8월 29일 위원장실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 노동계 계층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약자·미조직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안과 의견을 청취했다.

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위원회는 본위원회 말고도 사회 각 계층관련 위원회(이하 계층별위원회)\*라는 노동약자 이해대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계층위원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로서 계층별위원회가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법 시행령 제12조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어 “그간 계층별위원회 출범이 지연돼, 취약한 노동계층의 의견 청취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상시·지속적으로 의제개발과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계층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노동약자가 겪는 어려움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려지고 합리적 해법이 모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slc](#)

담당 이현욱 전문위원

